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장학생 선발 계획
통과... 190명으로 확대

정읍시가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90명으로 확대했다.

(재)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우수인재장학금 선발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발은 전년 대비 20명을 늘린 총 19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예정 금액은 4억 44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를 둔 대학교 재학생 중, 한 학기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금 수혜 회수를 '평생 1회'로 제한해 보다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장학생에게는 1인당 4년제 대학생은 220만원, 전문대학생은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성적과 생활 정도를 평가해 선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4개 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 협의 실시

부안군은 17일 위도면 정금지구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4개 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대상지구는 부안읍 동중2지구, 상서면 우덕지구, 변산면 공항지구, 위도면 정금지구로 총 1337필지(면적 59만 513㎡)이다.

경계 협의 일정은 정금지구 오는 17일 토지소재지 현지에서, 우덕지구 오는 25~28일 우덕경로당에서, 동중2지구 오는 7월 1~3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공항지구 오는 7월 8~9일 공항비율경로당에서 사업지구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 잡아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지적 정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5 고창갯벌축제’ 성료

만들어춘체합마을 일원서 3만여명 찾아... 동죽 캐기 · 풍천장어 시식 등 다채

고창군 심원면 만들어춘체합마을 일원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린 “2025 고창갯벌축제”가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3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를 이룬 이번 축제에는 갯벌에서 동죽을 직접 캐보는 갯벌체험부터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풍천장어 시식 및 판매 부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비탈미밭 풍천장어 맨손잡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족과 함께 뛰는 명랑운동회, 고창갯벌의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는 갯벌자랑이 건강걷기, 비탈미밭에서 진행된 힐링요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이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민물 부너화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먹거리 코너에서는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로 만든 새우튀김, 꼬막무침, 꼬막비빔밥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위원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5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쾌적한 축제장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많은 분들이 고창 갯벌축제를 찾아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창의 아름다운 갯벌과 풍부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위도면은 16일 1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협심도진(協心圖進)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협심도진’ 군민과 희망소통대화

부안 위도면, 100여명 참석... 면정 주요 업무보고 등 성황리

부안군 위도면은 16일 1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협심도진(協心圖進)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면정 주요 업무보고, 군정비전 공유, 희망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 위도면 주요 업무에 대한 유영희 위도면장의 면정 보고가 진행돼 면민의 자긍심과 공감대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어 권익현 부안군수의 군정비전 공유 영상 시청과 2024년 성과 및

2025년 업무계획을 듣는 비전공유 시간을 갖고 희망소통대화를 진행해 군정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 위도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친숙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는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유영희 면장은 “군과 면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도면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협심도진이라는 군정 철학 아래 모두가 협력해 발전하는 위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장마 대비 체계적 대응 철저히”

장마철 앞두고 농경지 · 교통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 선제적 대응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농경지와 교통시설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시는 16일 오전 간부 영상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농경지 침수와 배수 불량 낙석 위험 지역, 공사 현장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지대 주택가, 급경사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철 피해는 사소한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일방적 강행 결정에 유감”

부안군의회, 사업주 의회 사전방문시 분명한 뜻 밝혀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2일 개최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제5차)와 관련하여, 부안군의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반대 입장과 함께 행정절차상 요구사항 등 반영되지 않은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의회 소속 위원들은 결정에 앞서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이재령 대통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추이 고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원칙과 주민 참여를 경시한 행정 독주이며, 차후 발생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우려됨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추진 방식의 정당성과 지역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주체인 한전은 자신들의 입장이 최우선일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응과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하는 모양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재역할에 나서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은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안군의회는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표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15개 업소 ‘맛집’ 선정

정읍시가 선정한 15개 맛집이 지역 미식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증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더해져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증 수여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지정증을 전달하고, 외식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신기계 정읍국밥 △이양촌해물칼국수 △대일정 △자양식당 △밥보찌이전복 △북대지 삼겹살 △순정육회 정음한우명품관 △이화담 △청평식당 △춘향골 △금거북 △산골별면 △명성쌈밥 △빛골 한우곱창 △새미한국수전문점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식재료와 음식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 고득점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업소에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을 비롯해 관광정보 QR이 삽입된 테이블 세팅지 제공, 외식업주 맞춤형 컨설팅,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맛집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